

조건희 상임활동가

역대급 폭염, 예상치 못한 폭우 등 기후 재난을 마주했던 8월이 지나고 어느덧 9월이 왔습니다. 회원 여러분들도 위험할 땐 멈추고, 각자의 일터와 삶터에서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소식을 공유할까 합니다. 7월 22일, HL만도 평택공장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던 김승모 님이 기계를 수리하던 도중 끼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설비에 안전장치는 설치되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전에도 발생한 적 있던 사고였습니다. 하지만 만도 사측은 중대재해 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노조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거부하며, 유족에게 개별 접촉을 시도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현재 부모님과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등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김승모 님 죽음의 책임을 만도 자본에 물으며 싸우고 있습니다. 한노보연도 대책위원회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반복되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싸움에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 첨단산업 육성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피지컬AI, AI 데이터센터) 계획이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제 혜택 등 재벌 특혜의 문제, 물/전기의 무분별한 사용 문제, 노동시간 규제 완화 및 불안정노동 확대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 등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한 여러 문제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직되고 있는데요, 올해 9월 19일 예정된 기후정의행진도 “3대 메가프로젝트에 맞선 대중 운동을 건설하자”라는 핵심 기조를 중심으로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준비 중입니다. AI 도입에 따른 자본의 노동과정 감시와 통제의 문제, 기술 도입 과정을 노동자가 통제할 수 없음에서 기인하는 고용불안이나 노동강도 강화의 문제 등 노동자 건강권 차원에서의 문제도 여러 층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9월 2일 회원 집담회, 9월 19일 기후정의행진 등 다양한 자리에서 우리의 운동으로 엮어 나가고자 합니다. 9월 기후정의행진을 비롯한 여러 싸움의 장에서 만나요!

